

면암 최익현의 흑산도 유배한시에 드러난 소통의식

서성우* · 양보경**

<차 례>

1. 들어가며
2. 현재와의 소통 : 정명을 위한 지식인들과의 교류
3. 미래와의 소통 : 은둔 속에서의 자연친화적 삶
4.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소통의 방식에 주목하였다. 그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영향을 받은 전통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정치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면암은 여러 차례 상소문을 올려 중앙 정계와 소통을 갈망했으나, 매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흑산도 유배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와의 소통을 끈기있게 지속하고자 했던 그는 정명(正名)을 위해 지식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였으며, 미래와의 소통을 준비하며 자연 속에서 은둔자로서 삶을 살았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면암은 철저히 유가적인 소통 안에서 유배를 제 2의 정치적 현실로 인식하였다. 즉, 공자의 은둔에 기초하여 유배를 미래를 위한 수양과정으로 여겼으며, 현재의 정치적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소통의 자세를 꾸준히 견지하였다. 이를 위해 유배지에서 그가 소통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은 뜻을 같이하는 지식인과 흑산도의 자연이었다.

*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면암의 유배생활은 체계의 공적 측면으로서 정명(正名)과 인습(因習), 손익(損益)의 면모들을 다 가지고 있다. 또한 사적 측면으로서 은둔자로서의 삶과 맹자가 말한 광자(狂者), 견자(獫者)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든 체계 안에서 소통 방법을 모색해야 했던 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흑산도 유배지에서 그의 이러한 소통 방식은 훗날 그의 항일의병투쟁의 기폭제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최익현, 상소, 흑산도, 유배, 소통, 정명, 은둔

1. 들어가며

유배는 조선시대의 오형(五刑)인 사형(死刑)·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형(笞刑) 중에 사형에 버금가는 유형에 해당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종신 추방형이다. 유배는 귀양(歸養) 또는 귀향(歸鄉)이라고도 하여 죄인을 고향으로 보내는 방축향리(放逐鄉里)의 개념에서 조선시대에 당쟁이 과열되자 정적(政敵)을 점점 더 악조건인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변화된다.¹⁾ 신분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지만, 죄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배지에서의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관직 없는 일반 사족이 아닌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는 유배길 자체가 고통스러운 길이였다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중앙정계에서 추방되어 정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고립되는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배는 겪는 사람에 따라서 고통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내면갈등의 극복과 정치적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했다.²⁾

1)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제9호, 한국문화연구원, 2005, 8쪽.

2)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제5호, 역사비평사, 2004, 273~274쪽.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 그는 1876년부터 1879년까지 약 3년여를 유배지에서 보내는 동안 낯선 공간에서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어수선한 심경을 다잡았다. 동시에 흑산도를 제 2의 정치 공간으로 인식하고 뜻을 함께 했던 지인들과 정치적 혹은 감성적으로 교류하며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였다. 이는 유배지에서의 낯섬을 극복하는 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 정계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주변과의 소통을 오히려 유배지라는 낯선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그의 제주도 유배생활에서보다 더 공교해지는 지점이다.

최익현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그의 철학사상³⁾, 정치사상⁴⁾, 항일 의병 투쟁⁵⁾, 제주도 유배⁶⁾, 시문집⁷⁾ 등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 그의 유배생활에 대해서는 제주도 유배 생활에 치중되었다. 물론, 시작품 연구에서 유배 한시들도 포함되어 다루어졌으나, 흑산도 유배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작품을 다룬 것은 이준곤의 연구⁸⁾뿐이다.

이에 본고는 면암 최익현이 유배지에서 주고받은 편지와 한시 등을 통해 그가 흑산도 유배생활 속에서 시도한 소통의 두 가지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그 소통의 성격을 살펴봄에 있어서 박해장의 논문 「공자의 소통의식에 관한 소고」가 시도했던 범주 구획과 논지를 인정하고 수

3) 박태옥, 「면암 최익현의 철학사상에 나타난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문제」, 『한중인문학연구』 제26집, 한중인문학회, 2009; 오석원, 「면암 최익현의 의리사상」, 『동양철학연구』 제31집, 동양철학연구회, 2002.

4) 전순옥, 「면암 최익현의 정치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5) 이현희, 「의병장 면암 최익현 연구-생애와 애국활동」, 『연구논문집』 제27집, 성신여자대학교, 2001.

6) 고창석 외,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 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7) 노인숙, 「면암 최익현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김경국, 「면암 최익현의 한시 연구-유배한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8) 이준곤, 「흑산도 전승설화로 본 면암 최익현과 손암 정약전의 유배생활」,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제11집, 목포해양대학교, 2003.

용하는 상태에서 출발했음을 명료하게 밝혀둔다.

박해장은 체계와 체계 밖을 구분하되 체계의 영역을 ‘공적의지의 영역’, 체계 밖의 영역을 ‘사적 정감의 영역’이라고 명명하고 이 두 영역을 기초로 하여 공자의 소통의식을 탐구한다. 박해장은 공적 의지의 영역에서 공자의 소통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정명(正名), 인습(因襲), 손익(損益)이고, 사적 정감의 영역에서 소통의식을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은둔이라고 보았다. 인습은 전통으로 지칭되는 과거의 문물과 제도를 이어받는 것이며, 손익은 인습한 것을 당대의 현실에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명은 말 그대로 이름을 바로 하는 것, 즉 명분과 말이 실제에 부합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공적 의지의 영역에서 소통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정명이다. 9) 그리고 은둔은 공적 의지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 체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의지의 영역으로의 귀환을 위해 성찰하고 역량을 비축하는 생산적인 과정이다.

본고는 최익현이 흑산도 유배 생활동안 생산한 한시들에 나타난 소통의 양상들을 공적 영역에서의 정명과 사적 영역에서의 은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유배인 흑산도 유배에서의 삶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흑산도에서 해배된 이후 그가 벌인 적극적인 의병활동을 비롯한 그의 행적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 박해장, 「공자의 소통의식에 관한 소고」, 『범한철학』 제55집, 범한철학회, 2009, 61~62쪽.

2. 현재와의 소통 : 정명을 위한 지식인들과의 교류

면암 최익현은 14세 때 부친의 명을 따라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문하에 들어가 기호사림의 정통 성리학의 기본을 습득하며, 그에게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배운다. 이러한 배움은 바른 사상(正學)을 지키고 바르지 못한 사상(邪學)을 물리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사상으로 연결된다.

그의 관료생활은 불의와 부정을 척결하고자 하는 강직함 때문에 순탄치가 않았다. 그는 1855년에 등용되어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에 반대하다가 그들의 눈 밖에 나기도 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그의 개혁에는 동참하였으나, 경복궁 중건, 당백전, 서원 철폐령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실정(失政)이라며 반대 상소를 하기도 하였다.¹⁰⁾

대원군 집권 10년이 되던 해인 1873년에는 대원군이 섭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계유상소(癸酉上疏)’를 올린다. 이 같은 상소를 통한 그의 공론 활동은 대원군의 실각과 퇴출을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나 결국 그는 군부(君父)를 논박하였다는 이유로 제주도 유배된다. 1875년 약 17개월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해배되었으나 1876년 명성황후의 척족 정권이 일본과의 통상을 논의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려 하자 척사소(斥邪疎)를 올려 조약체결의 불가함을 역설하다가 결국 흑산도에 유배된다.

3년간의 유배생활을 마친 후 맡은 관직에서도 물러난 그는 후진교육에 힘썼으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또 상소문을 올리고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임병찬(林秉瓚, 1851~1916) 등과 함께 태인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순창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우다 체포되었다. 결국 대마도에 유배된 직후 왜놈들이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며 단식을 감행했고 그 해

10) 김세철, 「면암 최익현의 위정척사사상과 공론 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247쪽.

에 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현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지녔던 면암은 소통을 가장 중요시했다. 그에게 있어서 정명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자 자아를 확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상소문이었다. 결국 이 때문에 제주도에 이어 흑산도로 유배를 오게 되었으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정명을 위해 지식인들과 교류하였다.

그는 힘겨운 유배지 생활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의 앞날에 관심이 많았다. 유배 기간 동안에 화서학과의 사우(師友)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1819~1891)과 주고받은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876년(병자년) 3월에 김평묵에게 답한 글 <答金重菴 丙子三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얼마 뒤 조정에 의론이 벌어지고 성명(聖明)의 노하심을 받고 위세에 조정되어 귀양 길로 전패함이 지난번에 비할 수 없으니, 몸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뒷날 패망을 흥기시키고 양(陽)을 일으킬 몇몇 선류(善類)들이 연루되어 잡혀 갇힐 염려가 없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이로부터 침식이 달지 않고 마음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일어난 근본을 캐어보면 한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외로운 군사의 약한 힘으로 지탱하려 하니, 바로 갈대 하나로 강하(江河)를 막는 것 같아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의 의리를 지키고 마음을 보존하고 득실과 성과에 대해서는 천명에 붙일 뿐입니다.¹¹⁾

면암은 사우 김평묵에게 최근 조정에서 일어난 사건 전반의 모순에 대한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연루되어 자신과 같은 유배에 처해지는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에 대한 두려운 심경이 담겨 있다. 그러한 두려움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11) 『勉菴先生文集』 권6, 「書」, <答金重菴 丙子三月>, “既而朝論橫決, 聖明觸忤, 其操縱威愾, 流殛顛沛, 尤非曩時之比, 則此身顧不足惜, 奈數三善類爲異日, 興替補敗除陰升陽之資本者, 亦不無收司連累之慮何? 自是以來, 殆寢食不甘, 靡所底定. 且今日事推原本始, 亦非一朝一夕之故. 其欲以孤軍弱力, 扶接支撐. 正如一葦障江河, 萬難抵當. 只以所守者吾義, 所存者吾心, 得喪效害, 付之命而已.”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선류(善類)들의 부재로 인한 조정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다. 당시의 의론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조정의 군사운용에 관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당시의 의론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자신이 속한 한 나라의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다. 그러한 내용은 김평묵에게 보낸 시에 차운한 <중암 김평묵이 보낸 시를 차운하다(次重菴金丈(平默)寄示韻)>에도 잘 나타나 있다.

嶺海年年雨露均	귀양지에도 해마다 임금 은혜 내리시니
濱危殘喘敢言還	실낱 같은 이 몸 돌아가길 바라네
看書要識從違別	글 읽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하고
臨事須分夢覺關	일 당할 때 밝고 어둠을 알아야지
懷利來時生死辱	이욕에 빠지면 생사가 모두 욕이요
循公去處古今閑	공정히 할 적에는 고금이 한가하네
北風萬里家何在	만리 찬 바람에 내 집은 어디런가
回首鯨濤浩渺間	고개 돌려 드넓은 파도만을 바라보네
居官居謫庇身均	삶엔 영욕이 똑같고
一苦一甘自往還	고락은 들고 도는 것
奇觀再過千里海	좋은 구경 찾아 먼 바다를 다시 지나고
孤衷常結九重關	외로운 충정은 구중의 관문에 맺혔네
聖心宵旰臣隣仗	전하는 정사 힘써 신하들을 의지하건만
廟筭淒涼酒肉閒	조정은 계책 없이 주욕으로 한가하네
聞道東槎迎賊至	듣건대 우리 사신 왜적을 영입한다지
此名應在死生間	이 한 몸 당연히 생사가 걸리겠지

<次重菴金丈(平默)寄示韻>¹²⁾

그는 중앙 정계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의 유배생활은 자의적인 것이 아닌 타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할 것이다. 험한 유배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혼란한 시기에 좋은 계책을 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나랏일에는 관심도 없고 개인 이

12) 『勉菴先生文集』 권1, 「詩」, <次重菴金丈(平默) 寄示韻>.

득에만 관심있는 간신들이 득실거리는 조정에 하루빨리 나아가고자 한 마음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국충정의 마음은 구중의 관문에 막혀있어 기울어지는 나라를 지탱할 이 시에서는 김평목을 통해서나마 자신의 뜻을 임금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느껴진다.

그의 나이 36세인 1868년에 시폐(時弊) 4조를 진달(進達)한 것이 그의 상소의 시작이었다. 그 내용은 첫째, 토목 역사를 정지시키는 것이요, 둘째, 취렴(聚斂)하는 정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요, 셋째, 당백전(當百錢)을 혁파하는 것이요, 넷째, 사대문세(四大門稅)를 금지하는 것 등이었으나 이러한 내용의 상소문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언로(言路)가 막혀 백성들의 마음이 절박하였는데, 그의 상소문으로 인해 중외(中外)가 하나가 되어서, 군자는 봉명조양(鳳鳴朝陽)을 일컫고 야인들은 태평 만세를 불렀다. 선생의 명성이 일국에 퍼지게 된 것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흑산도에서도 그의 명성은 사방에 널리 퍼졌으며 그의 의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그곳을 찾아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최영호(崔永皓)라는 사람이었다. 사우인 김평목이 지은 <최영호입흑산도기(崔永皓入黑山島記)>에서, 최영호라는 사람은 그의 명성을 듣고 노자도 없이 걸식하면서 경기도 포천까지 약 천여 리를 걸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경기도 포천에서 천 리가 넘는 흑산도에 이르러 제자의 예를 다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光州) 출신의 율수재(聿修齋) 박해량(朴海量, 1850~1886)이 있다. 그는 면암이 제주도와 흑산도에 있을 때 그를 찾아 배종(陪從)하면서 몇 달 동안 제자의 예를 다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¹³⁾ 또 흑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경서에 대한 토론과 시국에 대한 이야기 등 그 당시 실정을 빠짐없이 기록한 『해상일기』라는 책을 남겼으며, 면암을 비롯한 임헌회(任憲晦), 김평목, 기정진에게 학문을 배운 지식인이었다. 유배 기간 중에 면암과 나눈 대담의 기록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지은 「율수

13) 『勉菴先生文集附錄』 권2, 「年譜」 참조.

재기(肆修齋記)에서 효제충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조금의 게으름도 없는 독실한 실천에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승으로 여겼던 면암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창평의 김의현(金懿鉉), 순천의 조종헌(趙鐘憲) 등도 제자의 예를 다하고 돌아갔다는 내용¹⁴⁾도 있다.

그리고 박우현(朴遇賢)이 이웃에 유배와 있었는데, 연전에 탄핵한 일¹⁵⁾ 때문에 항상 스스로 겸연쩍게 여겨 감히 서로 문안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면암은 “이미 같이 귀양와 있는데 어찌 반드시 이 때문에 평생 원수질 것이 있겠는가.”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쌀과 반찬을 보내주었다고 한다.¹⁶⁾ 그것을 받은 박우현이 기뻐서 감격하고 달밤에 즉시 찾아왔는데, 이로부터 끊임없이 종유하였다. 그는 유배기간에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과 자주 여러 곳을 왕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면암은 유배지에서 자비로 모든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흑산도에 와서 양식 걱정이 매우 심하므로 부득이 글방 스승이 되어 먹고 살 밑천으로 삼을 계획을 하였는데 책을 갖고 와서 배우기를 청하는 자가 1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또 아침에는 배우고 저녁에는 복습하여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니, 귀양살이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소흑산도 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하였다.¹⁷⁾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유배지인 흑산도는 대흑산도(흑산도)와 소흑산도(우이도) 나뉘어졌는데, 그는 다소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 1877년, 유배생활을 한지 1년 정도 지난 시기에 그가 대흑산도에서 약 40일정도 지내다 왔다고 적힌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경비

14) 『勉菴先生文集附錄』 권2, 「年譜」참조.

15) 박우현은 1873년 최익현이 상소로서 대원군의 집정을 비판하여 대원군이 교외에 물러나고 최익현이 호조참판에 오르자, 이를 논박하는 상소를 올린 인물이다. 당시 같은 곳, 비슷한 시기에 유배에 처해졌다.

16) 『勉菴先生文集附錄』 권2, 「年譜」참조.

17) 이준근, 앞의 논문, 177쪽.

를 자비로 해결해야 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때 10여인이 글을 배우고자 찾아 왔는데, 이러한 만남을 통해 유배기간 동안의 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서당을 열어 글을 가르치는 것이 경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와 뜻을 함께 하는 지식인들을 배출하기 위한 후진교육의 일환이 되었다. 그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벗을 만났으며, 귀양살이의 외로움과 불통의 연속이었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고뇌를 그들과의 교유관계를 통해 해소하기도 하였다. 다음 작품인 <흑산에서 회포를 풀다(黑山叙懷)>에서 당시의 감회를 느낄 수 있다.

僻地誰憐楚客悲	궁벽한 곳 그 누가 내 슬픔을 알리오
邂逅今日感親知	우연히 만난 그대가 참으로 감사하네
石田未半當年食	돌밭에선 일년 양식의 반도 안 나오고
海艦平看萬里危	바다 배는 만리의 위태함을 보겠네
(중략)	
好與諸君倚短城	그대들과 작은 성에 의탁하니 좋은데
層溟五月楚山晴	험한 파도 오월에 초산이 개였구나
樛枝擁列孤鎮小	벌어진 가지 벌려서니 외로운 진영 작은데
斷壑中平一澗生	끊어진 구릉 평평한데 시냇물 흐르네
秋黃大麥蘇民病	보리가 익으니 백성들 병 낫고
翠滴繁陰爽客情	푸른 그늘에는 손님 마음 상쾌하네
只惟落日徘徊地	다만 해지는 석양이면 배회하는 곳에
怕聽怒濤激岸聲	성난 파도 바위에 부서지는 소리 듣기 두렵네
<黑山叙懷> ¹⁸⁾	

위의 작품은 흑산에서 회포를 읊은 작품의 일부분이다. 그는 자연과의 물아일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낯선 곳에서 지음을 만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겠는가. 그는 ‘우연히 만난 그대가 참으로 감사하네’와 ‘그대들과

18) 『勉菴先生續集』 권3, 「詩」, <黑山叙懷>.

작은 성에 의탁하니 좋다.’라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외로운 상황 속에서 마치 희망을 등불과 같은 지음을 만난 것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심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면암은 낮선 섬에서의 유배를 그 자체로 국한시키지 않았다.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가이자 문인으로서 함께할 수 있었던 지인들과의 만남을 친화적인 교유관계로 연결시켜 낮선 섬 지역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던 것이다.

3. 미래와의 소통 : 은둔 속에서의 자연친화적 삶

유가에서의 은둔자는 공적 의지의 영역을 떠나 사적 정감의 영역에서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사적 정감은 체계 밖의 영역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곤경에 처했을 때 중국의 이상주의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하나는 굴원의 방식으로 도로써 정치를 논하고 이상을 견지하면서 투쟁하며 정치를 평론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가적 방식으로 도를 품고서 정치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며 이상을 견지하긴 해도 투쟁하지 않으며 평정한 마음으로 치세를 기다리는 것이다. 은둔이 바로 그것이다. 즉 유가의 은둔은 공적 의지의 영역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하게 사적 정감의 영역으로 잠시 빠져 나와 있을 뿐인 상태로 사실상 미래를 위한 수양 과정인 것이다.

맹자에 의하면, 견자는 광자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으면서 유소불위(有所不爲), 즉 더러운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 원칙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¹⁹⁾ 광자, 견자는 공적 의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대중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선택과 결단에 따라 살아가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었는데, 면암 역시 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광자와 견자의 역할

19) 박해장, 위의 논문, 75쪽.

을 수행해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든 체계 안에서 소통 방법을 모색해야 했던 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의 스승인 화서 이항로는 전면 개혁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옛 것을 회복하는 것이 역사주의적 소통의식에 부합된 방식이라고 보고, 문화의식과 가치를 단절이나 건너뛰기 없이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성찰의 결과로 간주하였다.²⁰⁾ 이는 위정척사사상에 기초하여 정통 유학의 이념들을 강화함으로써 서학과 강제적 개방이라는 당대의 난제들에 대처하려 했던 그의 정치적, 학문적 입장과 상통된다. 즉 이 말은 그가 추구했던 소통이 스승인 화서 이항로의 소통은 물론 공자의 소통과도 상통됨을 의미한다.

사실 그의 흑산도 유배 자체도 철저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고종에게도 그를 유배형에 처한 것은 정치적 선택이었고, 그에게도 유배 생활은 결과적으로 정치 생활의 연장이자 이후의 항일의병투쟁의 기폭제들 중 하나로 작용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타의에 의한 그의 은둔은 조선인들의 의식 안에서 또 하나의 정명의 영역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양을 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점에선 사적 정감의 영역의 은둔에 속하는 일이었지만 그의 유배를 사대부들과 백성들이 지켜보고 또 지대한 영향을 받아 행동양식들을 결정하곤 했다는 점에선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계기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가 흑산도에 정착한 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써간 한시들은 공자의 은둔만의 복합적인 특질들의 일부분을 보여줄 것이며,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던 이들과의 교유의 증거들은 그들의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이후의 정치적 실천의 사상적 근거들을 정립하려 했던 ‘정명’의 노력들의 양상들을 보여줄 것이다. 면암의 상징과도 같은 많은 장소들 역시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시대를 닮은 난세를 산 그가 권력과 화폐가 아닌 도덕을 매개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울인 소

20) 맹재숙,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0~21쪽.

통의 노력들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흑산도 유배 생활 초기부터 면암은 섬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면암이 굴욕적인 병자수호조약이 맺어진다는 데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반대 상소를 하였다가 조정의 노여움을 사서 흑산도에 귀양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섬 주민들은 흑산도 진리에서도 별이 가장 따뜻하고 샘의 물맛도 좋은 양지마을의 한 터에 그가 머물 집을 지어놓았다. 이런 정성에 감동한 그는 주민들을 위하여 서당을 차려 ‘일신당’(日新堂)이라 이름하고 후진교육과 섬의 폐습 타파에 힘썼다.²¹⁾ 그의 서당 활동은 생계 수단인 동시에 교학 활동이자 주민들과의 교류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유배인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제약 없이 꽤 자유로웠고 무엇보다도 섬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존경, 인심에 한결 심신을 복돋울 수 있었다.

그는 중앙정계라는 타자와의 불통으로 인해 외진 흑산도로 유배를 와서 좁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만큼이나 유배지에서의 '낮쌌'이 주는 고독감에 시달린다. 중앙과의 물리적인 거리감으로 인한 고독감과 형벌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해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답답함을 극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는데, 다음 <흑산도의 가을 회포(黑山秋懷)>을 통해 엿볼 수 있다.

半壁孤燈獨不眠 낮은 벽 외로운 등 홀로 잠 못 이루고
 蒼葭玉露曲江邊 굽은 강가 푸른 갈대 옥 같은 이슬이라
 心懸故國傷多病 마음은 고국에 있어 근심으로 병이 잦고
 跡滯殊鄉感漸年 몸은 타향에 막혀 있어 가는 해 한스럽네
 <黑山秋懷>²²⁾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1875년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난 이듬해에 또 다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해 상소문을 올려 조약을 반대하여, 禁府(금부)에 수감되었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위 작품을 지은 정

21) 이준근, 위의 논문, 169쪽.

22) 『勉菴先生續集』 卷1, 「詩」, <黑山秋懷>.

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유배기간에 종종 위와 같은 심정을 토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작품처럼 그는 유배지에서 외로이 켜진 등불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뜬 눈으로 지새운다. 2구의 굵이진 강가에 푸른 갈대와 옥같이 둥근 찬 이슬을 보니 고국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간다. 단순한 고국에 대한 향수는 물론, 지금은 고국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쉽게 들지 못하니 그로 인해 병은 끊이지 않고, 타향에 갇혀 있는 하루하루가 더 없이 한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흑산도에 도착할 당시에 이미 그는 섬 주민들이나 그 인근 지식인들에게 낯선 인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환대까지 받았지만, 중앙 정계를 대상으로 한 상소라는 소통의 시도에서 좌절당하고 먼 곳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그는 향수와 고통을 동시에 느낀다. 모든 측면에서 그의 유배가 자발적인 은둔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유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은둔한 은자(隱者)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선택은 그들 자신들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선택에 대한 평가는 당시 나라에 도(道)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되었다. 즉 그들은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은둔하였는데, 이것은 유가에서의 출사(出仕)의 원칙이었다.

다시 말해 도가 있으면 벼슬에 나아가서 선정을 베푼다는 의미에서의 ‘출(出)’과 도가 없으면 벼슬에서 물러나 몸을 숨겨 때를 기다린다는 ‘처(處)’에서의 출처는 역사의 굴곡마다의 갈림길에서 고뇌해온 지식인들이 생명을 부지하면서 무도(無道)한 사회에 대하여 항의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는 전통 유학자로서 위의 출사의 원칙이 존재했으나, 위에서 말한 자발적인 은자이기 전에 타의에 의한 강제의 은둔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섬사람들의 환대 속에서도 아직 그는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한 은둔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의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이며, 그의 마음은 아직 철저히 중심을, 체계 안을 그리워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대흑산을 향하며 배에서 부름(向大黑山 舟中口號)>이라는 작품이다.

聖時無棄物 태평성대에 버린 사람이 없는데
 絕域老孤臣 먼 지역에 이 몸만 늙었구나
 欲強殘骸力 쇠한 몸 억지로 일으켜서
 拂巾問海津 옷 떨치고 바다로 나갔네

(중략)

孤槎出沒莫言艱 외로운 배 가는 것을 위험하다 말라
 萬里風烟談笑間 만리의 안개 바람 담소하는 사이에 지나리
 最愛靈山如引客 사랑스러운 명산이 나를 맞는 것 같아
 故教微雨洗羸顏 일부러 가랑비는 내 얼굴을 씻어주네

(하략)

<向大黑山 舟中口號>²³⁾

위의 작품은 면암이 대흑산도를 향하면서 지어 부른 작품이다. 참고로 당시에는 우이도를 소흑산도로, 지금의 흑산도는 대흑산도로 구별하여 칭하였다. 그는 유배인의 몸으로 대흑산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을 회상한다. 모든 이들이 바라던 태평성대를 위해 자신의 한 몸 바치고자 했으나, 그리 순탄치 않았던 것이다. 또한 유배지로 가는 조 각배 또한 너울이 심해 두렵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는 유배지로 가기도 전에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두려움도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담소를 하는 사이에 지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상소로 인해 유배에 처한 자신의 여정에 대한 담담한 반응으로도 보인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연을 대하는 감정과 태도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는 애써 유배지로 가는 뱃길에서 마주한 자연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하나의 매개체로 여긴 것이다. 다음 작품은 우이도에 올라 부른 <우이도에 올라 부름(登牛耳口

23) 『勉菴先生文集』 卷1, 「詩」, <向大黑山 舟中口號>.

號)>이다.

一峰牛耳接雲高 우이도 산봉우리 높은 구름에 닿아
 登陟渾忘氣力勞 높은 곳에 오르니 기력의 피로함 잊었네
 可愛層溟多少嶼 아름다워라 바다의 수없는 섬들이여
 萬年壁立敵洪濤 파도야 치든 말든 저 홀로 천년만년
 <登牛耳口號>²⁴⁾

그가 병자년(1876) 추석 우이도(소흑산도)에 올라 지은 작품으로, 우이도에 오른 감회와 풍광을 적은 서문, 그리고 위의 작품 한 수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의 마지막에 별감인 양문환(陽文煥), 주인(主人) 문인주(文寅周), 술겸(率謙) 김윤환(金允煥) 등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을 볼 때 유배생활을 시작한지 몇 개월 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시에서도 물아일체의 면모는 확연히 드러난다. 시의 정조 자체가 처음에 대흑산으로 향하는 배위에서 읊은 시의 그것과는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힘든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이도 산봉우리에 올라와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으며, 매일 요동치는 파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그는 이 작품의 서문에서 “이곳에는 세상의 많은 시비와 득실이 일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갠 낮과 밝은 밤에 오직 들밭에는 소 모는 소리와 푸른 바다에 노 젓는 노래만이 들려오니, 무릉도원이라도 이 경치에 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마음에 두렵고 눈에 해괴하였던 것들이 점차로 소멸되고 의연히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²⁵⁾.”라고 하였다. 자연 속에서 자족하고자 한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비

24) 『勉菴先生文集』卷1, 「詩」, <登牛耳口號>.

25) 『勉菴先生文集』卷1, 「詩」, <登牛耳口號> 서문, “凡世外是非欣戚, 一切不入耳孔, 晴晝月夕, 惟聞石田叱牛聲, 滄波搖櫓歌而已, 雖武陵桃源, 未足以喻其勝也. 於是向之惴於心駭於目者, 漸次消磨妥帖, 依然有坐禪入定之意.”

로소 그가 정치를 포함한 세상의 소요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거리는 바라만볼 뿐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관조적인 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객관화를 통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인식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엄정한 거리이다. 산봉우리에 올라서도 그는 “기력의 피로마저 잊고, 수 없는 섬들을 아름답다”고 여기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파도가 아무리 쳐도 천년만년 동안 끄떡 앓기 때문이다. 그는 그 섬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즉 그의 신념이 어떤 고독에도, 인간적인 감정에도, 세속적인 가치에도 잠식당하지 않을 만큼 견고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후의 그의 일관된 행적들을 볼 때 잘 알 수 있다.

이후 그의 물아일체, 즉 자연과의 소통은 섬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어졌다. 그가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의 행적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섬 주민들은 면암을 경계하지 않고 자제들을 일산당의 제자로 받아들라고 청했다. 또한 당대의 지식인인 인근의 유생들도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과 시국을 논하면서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동안 뜻을 같이 했던 지인들과의 교류 역시 병행되었다.

유가의 이상은 치국평천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은거를 어디까지나 본심이 아닌 부득이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부득이함도 천도의 차원에서 보면 필연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유자들은 굳건히 도를 품고 정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 즉 인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치이고, 은거는 기다림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유배에서도 정확히 관철되고 있는 보편적인 이치였다 할 수 있다.

4. 나오며

면암 최익현은 스승인 화서 이항로의 영향을 받았던 전통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임을 다하고자 적극적으로 정치현실에 참여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상소문을 올려 중앙과의 소통을 갈망했으나,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유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역경속에도 변함이 없었다. 철저히 유가적인 소통 안에서 그는 유배라는 것을 제 2의 정치현실로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유배를 공자의 은둔처럼 미래를 위한 수양과정으로 여겼으며, 현재성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의 노력을 하였다. 유배지에서 그가 우선적으로 소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자연과 지역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는 낮은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막막해하기도 하였지만, 중국엔 자연과 물아일체가 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교육활동을 하였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만난 지식인들과 친화적인 교유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갔다. 그 결과 그는 유배지에서 유가적인 소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즉 그는 활동이 왕성할 시기에 두 차례의 유배에 처하는 역경을 겪으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발전되고 심화된 의식을 보여준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도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에 대해 저항하였으며, 74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의병활동에 몸 바쳤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참고문헌

『勉庵集』

김도련외, 『국역 면암집』, 민족문화추진회, 1998.

고창석 외,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 연구」, 『탐라 문화』 제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김경국, 「면암 최익현의 한시 연구-유배한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5호, 역사비평사, 2004, 273~274쪽.

김세철, 「면암 최익현의 위정척사사상과 공론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247쪽.

노인숙, 「면암 최익현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맹재숙,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박태옥, 「면암 최익현의 철학사상에 나타난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문제」, 『한중인문학연구』 제26집, 한중인문학회, 2009.

박해장, 「공자의 소통의식에 관한 소고」, 『범한철학』 제55집, 범한철학회, 2009, 61~62쪽 및 75쪽.

오석원, 「면암 최익현의 의리사상」, 『동양철학연구』 제31집, 동양철학연구회, 2002

이권, 「공자의 정명에 관한 연구」, 『철학논집 19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이준곤, 「흑산도전승설화로 본 면암 최익현과 손암 정약전의 유배생활」,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제11집, 목포해양대학교, 2003, 169쪽 및 177쪽.

이향준, 「호남지역 유배-지식인의 몇 가지 양상」, 『호남문화연구』 제43

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2008.

이현희, 「의병장 면암 최익현 연구-생애와 애국활동」, 『연구논문집』 제 27집, 성신여자대학교, 2001.

전순옥, 「면암 최익현의 정치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제9호, 한국문화연구원, 2005, 8쪽.

<Abstract>

The life of exile in Heuksando and communication of Choi, Ik-hyun

Seo, Seong-woo · Yang, Bo-gyung

This paper concentrated on the life of exile in Heuksando and the communication mode of Myunam Choi, Ik-hyun. He, conventional confucian and fighter for independence influenced by Hwaseo Lee, Hang-lo, participated in reality of politics for realization of just society. Myunam desired to communicate with central political world by the letter several times, but he was rejected always and punished to the exile to Heuksando finally. But Myunam who wanted to communicate with reality consistently attempted to have companionship with intellectuals for Rectification of Names. Also, he lived as a hermit in nature preparing communication with future.

I could ascertain several facts by this paper. Myunam recognized exile as the second reality of politics in confucian communication. In other worlds, he regarded exile as development for future, and retained the gesture of communication to look contemporary political world squarely. Objects which he accepted to communicate in the place of exile are intellectuals sharing intension and the nature of Heuksando.

The life of exile of Myunam had Rectification of Names, Conventionality, Profit and Loss as official aspects of system. Also, it contained the life of hermit and Gwangja, Gyunja which Maengja named as private aspects. It was inevitable choice which he made to seek

communication mode in system anyway. This communication mode which he attempted in Heuksando, a place of exile activated a primings of anti-Japan struggle with army raised in the chase of justice.

Key words : Choi, Ik-hyun, Letter, Heuksando, Exile, Communication, Retification of names, Hermit

투고일 : 2016년 1월 15일, 심사 : 1월 18일 ~ 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